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나 유 승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arent-Being Experience
of Parents with Youth Athletes as Children

2023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나 유 승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나 유 승

나유승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오지현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문제.....	5
제 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부모되기.....	6
1. 역할수행으로서의 부모됨.....	6
2. 부모성찰.....	8
제2절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9
제3절 유소년 운동선수의 특징.....	12
제4절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13
제3장 연구방법.....	16
제1절 질적 사례연구.....	16
제2절 연구 참여자.....	17
제3절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18
1. 자료수집.....	19
2. 자료분석.....	20
제4절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	20

제4장 연구 결과.....22

 제1절 사례 내 분석.....22

 1. 참여자 1.....22

 2. 참여자 2.....24

 3. 참여자 3.....26

 제2절 사례 간 분석.....27

제5장 논의 및 결론.....44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arent-Being Experience of Parents with Youth Athletes as Children

Na Yu Seong

Advisor : Prof. Oh, Ji Hyun,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ed to find out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Parent-Being' for parents with children who are active as athletes in the early adolescence. In early adolescence, parents as well as children are confused. This is because parents also enter the middle age from adolescence, and changes are required in parenting behavior that have been taken so far. Furthermore, having a youth athlete as a child requires more time and financial support than parents with children of similar ages. As a result, they have to watch their children choose and grow on their own, while at the same time playing a dual role of continuing to engage in their lives like manag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approach youth athletes and their parents in a counseling psychological manner. In practice, they also need counseling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should help their children and parents separate healthil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소년 선수는 일반적으로 중학생까지의 아동·청소년 선수들을 일컫는다. 때문에 어린 유·아동기 시절부터 유소년 운동 팀에 소속된 아동은 선수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신체적 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이때의 아동들은 2차 성장을 비롯하여 호르몬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 등으로 불리는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춘기는 점점 그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여자 평균 11세(범위 8-13세), 남자 평균 12.7세(범위 9-14세)(대한의학회, 2011)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된다(신미, 유미숙, 전성희, 2010). 사춘기의 시작 연령이 빨라지는 만큼 과거에 비해 청소년기 또한 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같은 청소년기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연령별로 각기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각각 구분 지어 연구하고자 하며, 대략적으로는 11세부터 14세까지를 초기 청소년기, 15세부터 17세까지를 중기 청소년기, 18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ice & Dolgin, 2008).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초기 청소년기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권은영, 정현희, 2011; 박성미, 전미경, 2013; 손미영, 김영희, 2009; 조한익, 원상희, 2012; 최효임, 김성일, 2004; 황창순, 2006; 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그 중에서도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시기에는 앞서 드러난 신체적, 정서적 성장뿐만 아니라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교과 과정이 전환되면서 학업적인 변화, 6년간 다니던 학교를 떠나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하는 환경의 변화도 함께 겪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개인 내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학교 진학 전후 시기는 초

기 청소년기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스트레스를 살펴보았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특히 중학교 진학 전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중학교 진학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권은영, 정현희(2011)의 연구 결과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업 및 교우 및 교사 관계, 자아 성장과 같은 심리적 문제(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등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발달 과업과, 관계 및 환경의 변화, 내적인 갈등을 한꺼번에 맞이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초기 청소년기의 갑작스러운 발달과 변화는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모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며,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부모역할이 요구된다. 부모는 자신에게 의존하고, 가족에게서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을 받던 자녀들이 점차 가정 외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더 많은 필요와 성취를 느끼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녀와 한 발짝씩 멀어지게 된다. 이때, 부모는 사춘기라는 발달적 특성과 그 시기에 자녀가 겪게 되는 변화들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와 동시에 부모 개인으로서도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며 발달기적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곽소현, 2000; 유일영, 2005; 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이 시기에 부모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 자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녀와의 갈등, 부모로서 자신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된다(유일영, 2005).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으며, 부모자녀관계와 부모효능감은 더 낮다는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양육효능감도 아동기에 비해 더 낮다는 것(박진아, 2020)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변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와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다양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초기 청소년 시기에 부모자녀관계는 갑작스런 변화를 맞이하며 양가적인 역동을 띄게 된다. 먼저, 자녀의 경우 부모가 아닌 또래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독

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면서도, 아직은 성인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전지영, 조성제, 2021)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부모 또한 청소년이 된 자녀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독립적인 면을 기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가까운 유대를 갖길 원한다(유일영, 2005). 즉, 청소년은 부모에게서 벗어나려는 욕구와 동시에 의존하려는 욕구가 혼재됨에 의해 갈등을 겪고, 부모 또한 자녀가 자립하길 바라는 욕구와 여전히 자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욕구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이 시기의 자녀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성장하며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 생활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며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감소하게 되지만,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표상은 계속해서 청소년의 적응과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경주, 오경자, 2002). 이처럼 청소년기에 접어든 뒤에도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강유진, 문재우, 2005).

요컨대,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경험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발달상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 부모 개인의 발달기적 스트레스 경험 및 양육스트레스 상승과 부모효능감 저하,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양가적인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키 그들만의 독특성을 띄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기 청소년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 형성 다음으로 주된 발달 과업을 적응으로 보고, 학교생활 적응의 연장으로 학업이라는 요인과 관련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유계환, 2021a; 유계환, 2021b; 정병삼, 2012; 염혜선, 이은주, 2020; 박진아, 2020; 신현균, 2009; 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김주원, 2003; 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이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조기 선행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의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내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모자녀관계유형(박진아, 2020)과, 초기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진로, 학업 이외에도 또래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성향(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학교 및 사교육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한

학업적인 경쟁보다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훈련과 시합이 주된 일상을 이루고 있는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유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신체적인 특성, 식단, 혹은 훈련법 등을 비교 및 분석하여 높은 경기력을 위한 전략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에 비해, 초기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생 운동선수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룬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선수 개인의 마인드컨트롤을 돕거나 심리기술을 훈련하고, 팀워크를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있거나(최준재, 2008), 부상 등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권형일, 최경근, 편도영, 2020; 전용동, 이종영, 2018; 전태준, 최재섭, 2017; 이태립, 이보라, 박송주, 김경민, 2021). 이처럼 현재 스포츠 심리학계의 주요 관심사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김희진, 문소영, 2020). 또한 유소년 운동선수들은 선수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정서·사회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못지않게 그들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성장을 위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에 대한 연구 또한 많지 않으며, 부모되기 경험 등 그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 지지 및 지원, 상호작용이 운동선수인 자녀의 성격특성, 스트레스, 자신감(김한별, 2011), 선수 역할 사회화, 진로(이도운, 김지태, 2014; 이찬기, 김지태, 김현태, 2012), 운동몰입(김만수, 김옥자, 2018; 김순영, 2018; 김한별, 2011), 자아탄력성(김재요, 2020), 스포츠 도덕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영향이 자녀의 운동 동기(김동현, 김용규, 2018)와 지속(조유익, 최영준, 2016) 혹은 경기력(한충희, 천홍, 김주영, 정구인, 2019)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시간적인 헌신이 필요로 하며(Fredericks & Eccles, 2004),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협회차원의 정책적 지원보다도 부모의 역할과 지원이 절대적이며(강현희, 최덕목, 엄혁주, 2016) 부모의 열정, 한국식 자식사랑, 온 가족의 지원과 같이 타국과는 차별된 독특한 지원 행동이 존재한다(Shin & Nam, 2004). 이처럼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의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부모들보다도 자녀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금전적·시간적·정서적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 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자녀의 선수로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초기 성인기에 결정되는 대학 입시 및 직장 입사까지가 아닌, 언제가 될지 모르는 프로 데뷔와 선수로서 성공하기까지, ‘뒷바라지’의 역할을 더 많은 영역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유소년 운동선수를 키워나가는 부모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부모되기 경험의 특성을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모되기의 경험이란 개인에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뜻하며, ‘나’에서 ‘엄마’, ‘아빠’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고, 그에 따라 맞이하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뜻하며, 자신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모습을 말한다(정은경, 2009). 즉, 부모되기 경험이란 이미 완성되어지고 끝맺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와 자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부모’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형성해나가는, 부모성찰의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선수반에 소속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색해봄으로써 이 시기 부모되기 경험의 의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이는 유소년 운동선수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방향성 제안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제2절 연구 문제

- 문제 1.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에 대한 사례 내 분석은 어떠한가?
- 문제 2.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에 대한 사례 간 분석은 어떠한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모되기

1. 역할수행으로서의 부모됨

부모라는 역할은 개인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되면서 새롭게 부여된다. ‘부모됨’이란 출산, 보호, 양육, 교육 같이 부모라는 새로운 이름에 따라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말한다(Bigner & Gerfardt, 2014). 더 나아가 부모됨은 부모가 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들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과정(Umberson, Pudrovska, & Reczek, 2010),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과 사회적 위치라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송정숙, 배덕경, 전영주, 2014)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라는 역할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 전반을 일컫는다. 부모는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됨과 동시에 가정과 부모-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내·외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임혜진, 조유진, 2018). 그 과정에서 부부 중심이었던 생활은 부모-자녀 체계로 전환되고, 그로 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 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7). 부모됨의 내용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경험이 된다(송진숙, 권희경, 김순기, 2006). 또한 이 역동성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되기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성취해나가는가를 알 수 있다(정은경, 2009).

이처럼 부모됨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경험이기 때문에 양육과 분리하여 논할 수 없는 개념이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에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문소라, 2017). 또한 현대에는 양육의 개념을 단순히 부모의 일방적인 역할 담당이 아닌, 아동과 부모가 상호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최혜순, 2011). 즉, 양육을 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의식주를 챙기고 돌보는 행위에만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를 만남으로서 한 개인의 인생에

서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는 그 과정 전반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모됨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해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새롭게 습득하고 갖춰나가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문소라, 2017). 이렇듯 성공적인 부모 역할 수행, 즉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정은경, 2009). 적절한 양육행동이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부모가 그에 맞는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 나간다는 면에서 부모됨은 사회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문소라, 2017). 부모됨이란 궁극적으로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닌,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이 맞이하는 변화와 발달에 따라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적응적인 부모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부모되기란 이미 고정되어 실체하는, 이미 있는(being) 존재가 아닌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과정(becoming)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주체인 부모가 보다 긍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며 함을 짐작할 수 있다(문소라, 2017). 이러한 부모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할 수행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의미, 가치관, 신념, 태도 및 구체적 행동에 대한 폭넓은 탐색이 요구되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 및 부여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박은숙, 2015).

이에 부모되기 경험은 자녀의 특성 혹은 부모 개인, 환경 등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후 36개월 미만아 자녀의 부모되기 경험은 자녀 중심, 가족 중심으로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부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양육태도와 방법에 영향을 주고받게 하였다(정은경, 2009). 만성질환아동의 부모되기 경험은 정서적 고충과 같은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아픈 아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 관리, 재정상화를 이루어가며 일상이 달라지게 하였고(박은숙, 2015), 자폐아의 부모되기는 차이에 대해 받아들이고 긍정하며 함께 하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이원희, 2019). 청소년 양육 미혼모에게 부모됨의 시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시간이 되었다(남미애, 2011). 성소수자 자녀의 부모되기 경험은 새로운 가족관, 세계관을 지향하게 만들었다(이은지, 2021).

2. 부모성찰

성찰(reflection)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는 뜻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을 일컬으며(신효미, 2016), 개인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말한다(조수철, 2000). 이처럼 성찰 기능이란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하며 더불어 부모의 성찰기능은 안정적인 애착관계와 양육행동을 이끌고, 그를 통해 자녀 또한 자신의 성찰기능을 발달시켜 나가도록 한다(박민경, 2019).

반면 ‘부모’라는 정체성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신효미, 2016), 부모성찰은 자기성찰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자기성찰, 즉 부모 개인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 ‘부모자녀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고로 부모성찰이란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헤아리며,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스스로 통찰을 얻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생애 초기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애착이론과 접목해 부모성찰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였는데, 정신분석학자 Fonagy가 구체화 한 부모성찰의 개념은 정신화, 심리적 마음상태, 마음을 엄두에 두는 태도, 공감, 통찰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신효미, 2016). 즉,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 신념, 욕구와 같은 내적상태를 중요하게 사고하고, 그와 연관 지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Fonagy & Target, 1997).

따라서 부모성찰은 ‘개인’에 대한 이해가 아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정체성이자 역할인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신효미, 2016). 또한 더 나아가 양육관련 문제와 자신의 양육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 관계성을 명확히 하여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경험해 온 바와, 그 경험 속에서의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 다다른 것을 뜻한다(강상현, 손정락, 2019). 즉, 자신의 감정과 같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내적 경험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신효미, 2016). 이에 도달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분노와 좌절감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바람직한 부모됨’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을 바람직하게 키

을 수 있는 부모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에 대한 핵심감정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김지영, 김유숙, 이운선, 2013). 즉, 부모성찰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의미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양육에 대해 통찰하게 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제2절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청소년이란 만 9세에서 24세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되는 자를 일컫는 말로, 세부적으로는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으로 나뉜다. 특히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연령의 감소가 계속해서 가속화됨으로 인해, 현재에 들어서는 여아는 9세, 남아는 10세에 사춘기가 시작(정옥분, 2018)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4학년에는 대부분의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며, 국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초기 청소년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인생에서 가장 급격하고 변화무쌍한 시기를 보내는 때이며(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신체, 정서, 환경적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남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정도와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다른 어떤 시기에서 겪는 것보다 클 수 있다(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 2014; 이희정, 조윤주, 2010).

또한 초기 청소년기 중에서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시기에는 신체·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6년간 익숙해져온 초등학교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장소와 규칙,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적 변화를 겪게 되며, 학업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음을 인식하게 된다(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유계환, 2021).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신현균(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대부분의 생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와 권은영, 정현희(2011)의 연구에서 중학교 진학 전후에 스트레스가 가장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초기 청소년들이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그러한 취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의 혼란과 스트레스는 잘 다루어지지 못했을 때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를 일으키거나 후기 청소년기에 지위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김희영, 권혜진, 김경희, 김수강, 염순교, 2005) 추후 문제행동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이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관계이자 그 속에서 자기상을 발달시키게 하고, 사회로 나아가며 다양한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가 점점 확장되고, 자기상에서 더 나아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부모자녀관계는 생후 초기부터 맺게 되는 인간관계로, 자녀의 발달 및 심리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박진아, 2020), 정서 상태 및 자존감과 가치관(민선옥, 강영숙, 2015), 인격 형성과 사회화(양영화, 정주리, 2017), 학업성취(정병삼, 2012), 더 나아가 삶의 만족도(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성장 과정을 비롯한 삶의 많은 영역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격형성과 인간관계(신향숙, 장윤옥, 2001; 김정윤, 이은해, 오원정, 2001)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 중에서는 특히 우울(김연희, 2005; Robert & Simons, 1989; 박원모, 김미선, 천성문, 2008)과 불안(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최인재, 2004)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재연하게 되기 때문에 또래관계(천성문, 박원모, 이영순, 조장식, 2007)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부모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으로 대처(김진주, 조규관, 2012; 양현아, 박영애, 2004)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형성과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동은 걸음마기 이후부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다가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가 되면 친밀감의 욕구가 급증하게 되어(박원모, 천성문, 2008) 동성의 단짝 친구를 통해 그 욕구를 충족한다(천성문, 박원모, 이영순, 조장식, 2007). 이 시기에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확장되며 부모를 향한 의존성은 감소하는 반면, 또래와의 심리적 밀착이 증가하고 또래로부터 정서적지지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양영화, 정주리, 2017).

이처럼 초기 청소년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욕구로 인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의존하기보단, 또래 집단 속에서 관계를 맺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부모의 보살핌과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다(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하지만 아직 심리적으로나 법적·경제적으로 온전히 홀로서기를 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아직 부모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신체 및 행동의 변화와 세대마다 달라지는 청소년기의 문화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허용해야하는지 혼란을 겪게 된다(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자율성을 제한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의 결여로 지각(문경주, 오경자, 2002)하기 때문에, 부모는 혼란스럽더라도 자녀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동기 때보다 더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등의 새로운 양육 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학업이나 진로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주원, 2003).

더군다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신 또한 발달적으로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며, 그 과정에서 중년기 위기, 갱년기를 경험하고 발달적 변화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2017). 또한 자신으로부터 서서히 자녀가 멀어져가고,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빈 둥지 시기’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2017).

반면 역기능적 양육방식이 아동기 때보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초기 청소년들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Dallaire et al., 2006.; 박진아, 2020 재인용)과 부모에 비해 자녀가 부모의 방임, 신체·정서학대,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이영경, 장훈, 최진이, 허태균,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를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지각하게 되며, 특히 역기능적이거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태도를 적절히 전환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초기청소년과 부모 모두가 문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아동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고, 실제로 또래 집단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더라도 부모를 통해 또래에서는 충족되지 못하는 형태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전까지 겪어왔거나 현재 겪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부모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나 역기능적 양육방식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악영향을 받기 쉬워지는데, 부모도 자녀의 급격한 발달에 적절히 대처하고 새로운 양육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 혼란을 겪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 개인적으로도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며, 발달적 변화에 대해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제3절 유소년 운동선수의 특징

유소년 운동선수는 보편적으로 유·아동기부터 중학생 때까지 선수 활동을 하는 아동들을 의미한다. 유소년기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신체활동은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을 비롯해 욕구불만 해소를 통한 건전한 사고(윤민영, 2003)와 정신적 발달, 경기라는 작은 사회적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행동 양식 습득 및 상호협력과 사회성 증진 등의 사회적 발달(김종화, 우동한, 2008)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김성일, 2015). 더 나아가 이 시기의 레저스포츠활동 참여는 자유성,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등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재복, 구봉진, 김용규, 김주호, 2008).

하지만 단순 취미가 아닌 자신의 진로로서 운동을 선택한 순간부터 운동은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제공하는 활동이 아니게 된다. 이 점은 학년이 올라가고 경력이 쌓일수록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데,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경우 저학년보다 고학년일 때 운동 활동의 참여 강도와 참여 경비가 높아지며(서재복, 구봉진, 김용규, 김주호, 2008)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이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들은 이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운동선수로서 진학한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운동을 지속할지에 대해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고등학교 진학 후에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

고 현실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시기에 희망 대학과 진로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 비해 최소 6-7년 이상 이른 시기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자신의 바람과 의지보다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팀이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진학 결정 시기·학교의 소재지 등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곳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수로서 진학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팀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로서 발탁될 수 있을 만큼 신체적·기술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진학 전후 시기에는 일반 중·고등학교와 체육 중·고등학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이기도 하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경우, 많은 시합과 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승패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스포츠 상황의 특성상 실패 경험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김연진, 박승하, 2018). 게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띠며, 선수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강현희, 최덕목, 엄혁주, 2016). 더군다나 팀 스포츠의 선수인 경우, 비교적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학업으로서의 성취나 개인 종목 선수에 비해,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동시에 ‘팀 워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경쟁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함과 동시에 팀원과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체력뿐 아니라 강한 심리기술 또한 요구 받는다(김정수, 윤영길, 2000; 윤영길, 2006).

제4절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박세리, 박인비, 박지성, 박태환의 공통점은 바로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을 위해 매니저 역할을 자청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다른 학생들처럼 많은 경험을 하기 보다는 주로 한정된 사람과 만나고, 한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박영희, 박창범, 2016).

더욱이 한국 스포츠 문화에서는 부모의 스포츠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사회적지지 구성 요소는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건강, 행동

적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성창훈, 유승준, 2011), 한국의 정서적 특성상 부모 자녀관계도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송강영, 황재욱, 2018).

이러한 부모의 영향력은 실제로 부모가 행하는 것보다 운동선수인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하는지가 더 중요한데(전상완, 이우승, 2017), 운동선수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가장 높게 지각하며, 특히 단체종목 운동선수들은 개인종목 운동선수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덜 애정적이라고 지각한다(김철수, 2005).

운동선수 자녀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운동지원 행동이 많을수록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기관리 행동과 사회성숙도가 높아지고(김종화, 우동한, 2008), 부모의 애정적인 역할은 고교 야구선수들이 다양한 진로를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이도윤, 김지태, 2014). 부모의 관심은 골프선수 자녀의 자기주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광호, 권승민, 김성훈, 2009), 스포츠 활동의 선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을 통해 스포츠 자신감을 발달시킨다(성창훈, 유승준, 2011). 또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정신력, 탄력성, 자기효능감, 낙관성, 심리기술, 희망과 같은 긍정심리자본과 정적인 상관을 띠며(백혜경, 2019) 사회적지지는 중학교 축구선수의 자아존중감, 경기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한충희, 천홍, 김주영, 정구인, 2019). 더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선수 자녀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윤혜성, 임태희, 장창용, 2017), 특히 애정적 양육태도는 고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정서와 운동에 대한 동기 및 만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김학환, 2020).

반면 지나친 개입이나 지원행동, 성취압력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거나 소진을 증진시킨다(전상완, 이우승, 2017; 김재요, 2020). 이처럼 부모의 지원은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부담이나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충분히 든든한 자원으로 느껴질 수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듯 운동선수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보니 한 명의 자녀로서, 또 선수로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 이영직, 임다연(2021)에 따르면 청소년 엘리트 야구 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재정적인 지원, 훈련 및 시합 동반을 위한 시간적 헌신, 자녀의 기량 및 경기 결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녀의 나이와 기량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선수 활동에 대해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Kay, 2000). 이

는 특히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학원비를 낼 때와 비슷한 정도로 느껴졌으나 진학할수록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강현희, 최덕목, 임학주, 2016). 즉, 부모들은 자녀가 선수로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재정적, 시간적 헌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때로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한다.

학업에 매진하며 그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주요 이슈인 다른 아동을 자녀로 둔 경우와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경우, 각각 요구되는 ‘뒷바라지’의 기간과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하고 결혼 후에는 이전만큼 많은 뒷바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프로나 아마추어 선수로서 데뷔를 한다고 해도 직업적 특성상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며, 부상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운동을 그만뒀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강현희, 최덕목, 엄혁주, 2016; 이태림, 이보라, 박송주, 김정민, 2021).

이처럼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부모가 겪는 부모되기 경험은 일반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뒷바라지의 역할을 더 많은 영역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은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때문에 많은 사례를 모집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사례를 선정한 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인위적 조치나 강요, 통제를 가하지 않은 상황을 자연스럽게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그 중에서도 사례 연구(Case Study)란, ‘사례’라고 불리는 현실 세계의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바라보며 사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Stake, 2000), 사례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점을 공유하며,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이민지, 2022). 또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한 뒤, 다양한 측면에서 그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Yin, 2017) 사례 연구는 실생활의 현상 및 현상과 관련된 주요 정황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적절하다(Yin, 2016).

본 연구는 부모되기 경험이라는 실생활에 가까운 현상에 대해 연구자의 인위적인 영향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 그대로를 심층적으로 살피며, 그 속에서 초기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과 청소년 운동선수라는 특수한 맥락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중 사례연구는 하나의 중심 현상에 초점을 맞추되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하여 중심 현상에 대해 더 다각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고, 해당 맥락 안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Yin,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진학 전후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의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다. 또한 발달 시기와 청소년 운동선수라는 특성은 동일하나, 운동 종목 및 그 아이의 고유한 기질 및 성격에 따라, 또

각각의 부모가 살아온, 혹은 현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들의 부모되기 경험은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다중 사례 연구 방법을 택해 중학교 진학 전후 시기의 유소년 운동선수를 키우는 부모가 각각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부모가 겪는 현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의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이라는 중심 현상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 그 중에서도 중학교 진학을 전후로 다양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는 발달적 특성을 가진 청소년과 동시에 유소년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모되기 경험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들도 발달적으로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아동기 때와는 또 다른 양육 태도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부모자녀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발달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기 쉬운 상황에서, 유소년 운동선수라는 특수성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연구나, 그들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부모되기 경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수반에 소속된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고 모집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설정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자 역시 그 범위를 따랐으며, 그중에서도 중학교 진학이라는 환경적 변화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기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중학교 진학 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선정하여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 특성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연령/ 성별	40대 초반 / 어머니	40대 후반 / 아버지	30대 후반 / 어머니
자녀	A(중1 야구선수 아들) b(초5 딸)	C(중1 축구선수 아들)	D(중2 축구선수 아들) E(초6 축구선수 아들) f(초3 딸)
참여자 직업	남편의 사업 보조 (남편 : 사업)	회사원 (아내 : 승무원)	시모의 사업 보조 (남편 : 사업)
참여자 특성	A를 비롯한 부모, b 넷이 함께 거주 중	C를 포함한 셋 모두 각각 별거 중	D, E는 각각 타지에 거주, 부모와 f만 함께 생활 중

참여자 1은 40대 초반 어머니이다. 자녀는 1남 1녀로, 중학교 1학년인 야구선수 아들(A)과 초등학교 5학년인 딸(b)이다. 남편과 A, b 네 식구가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참여자 1은 남편의 사업 보조 외에도 등하교 및 훈련, 시험 일정에 맞춰 A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자 2는 40대 후반 아버지이다. 자녀는 중학교 1학년인 축구선수 아들(C) 한 명이며, 타지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여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국제선 승무원인 아내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참여자 2는 C가 5세 되는 해부터 독박 육아를 시작하였다. 현재 가족 세 명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참여자 2가 매 주말마다 C가 생활하는 지역으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여자 3은 30대 후반 어머니이다. 자녀는 2남 1녀로, 중학교 2학년인 축구선수 아들(D)과 초등학교 6학년인 축구선수 아들(E),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f)이다. D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타지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으며 E 또한 최근 내년에 입학 예정인 중학교 근처의 초등학교로 진학을 가게 되어 타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참여자 3은 남편, f와 세 명에서 생활하고, D는 중학교 기숙사에서, E는 하숙집에서 각각 떨어져 지내고 있다.

제3절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인 부모를 한 명 당 세 차례씩 대면 상담으로 만나 1~2시간 동안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면담 전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연구를 위해 활용하나 그 외에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름 등의 개인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기호화하고 연구가 끝난 뒤에는 모두 폐기할 것과 연구 참여자가 원할 시 연구 도중에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가 제공된 뒤에 연구 참여자는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담에 임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아동심리치료 전공 교수 1인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한 후 활용하였다. 질문지 구성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면담 중에는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필요시에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

<표 2> 질문지 구성내용

주제	내용	질문의 예시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되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며 경험하는 변화	① 자녀의 변화 : 신체 및 정서 발달 ② 부모의 변화 :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부모의 기대
	부모가 겪는 갈등 및 혼란	① 양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②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
	자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① 새로운 양육 행동 ② 부모교육 ③ 부모 커뮤니티
	초기 청소년기 부모로서 형성하는 부모됨의 의미	① 자녀의 성장에 대한 의미 ②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 ③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 자녀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④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부모로서의 나, 새로운 부모역할
유소년 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되기	선수로서의 중학교 입학	①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반응 ② 독립해가는 자녀에 대한 반응
	선수를 육성하며 겪는 경험	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 지원 ②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생긴 변화 : 경제적·시간적 노력, 가족 역동 ③ 선수를 결정한 계기와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 각각의 입장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중사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Creswell, 2013). 각 사례의 세부적인 기술과 사례 내 주제를 제시하는 사례 내 분석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례들 간 특징과 주제를 도출하는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녹음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면담 내용을 문서화하고, 이후 문서화 된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였다. 둘째, 자료 내 연구목적의 측면에서 유의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추려내는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사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사례의 맥락을 기술하였다. 개방 코딩은 사건과 그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찾아낸 개념들을 일정 범주 안에 넣고 그 속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속성들의 패턴이나 동일성을 알아보는 방식을 말한다(Glaser, 2014). 셋째, 사례 내 분석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코드를 모두 나열하고 범주화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절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연구 참여자, 독자가 함께 구성해야 한다(조용환, 2011). 본 연구자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녹음을

전사한 뒤, 문서화 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며 연구 참여자가 했던 말의 내용과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코딩 과정에서는 연구자 외 6명의 석사 재학생들과 각자의 코딩 내용에 대해 공유 및 보완하며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선입견으로 인한 지나친 일반화 혹은 과잉 해석이 사례 고유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예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이 더 민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주제, 목적과 진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중도에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문서화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녹취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가 종료된 뒤에는 폐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 중 연구 참여자와 가족, 혹은 그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기관과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자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화하여 코딩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사례 내 분석

1. 참여자 1

1) 5학년 말부터 시작된 ‘매니저 생활’

참여자 1의 아들인 A는 초등학교 2학년 때 TV에서 야구를 본 후 관심을 가졌다. 가족들 모두 함께 야구경기를 직접 보러 가기도 하며 즐겼다. 하지만 A가 직접 야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는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임하려고 하는지, 또 야구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그때는 별로 그렇게 뭐... 그리고 몰랐어요, 전혀. ‘너를 어디 가서 야구를 시킬 것이냐’ 저는 모르니까.”

이후 A가 4학년이 되고 다시 한 번 “왜 야구 안 시켜 주냐”며 요구하자 주변 지인에게 소개 받아 ‘리틀 야구단’의 취미반에 입단시켰다. 이내 감독님의 선수 제의를 받아 5학년 동계 방학 때부터 선수반으로 옮기고, 올해 ‘엘리트선수’로서 중학교에 진학하며 보다 본격적인 매니저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운동에 더 흥미를 붙여주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어느덧 참여자에게 ‘매니저’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온 가족의 스케줄을 좌우하는 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주말만 취미로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무슨 선수냐’고 했는데 경기 시합 같은 걸 뛰게 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재미를 느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애가 진로를, 야구 진학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5학년에서 6학년 사이 겨울방학 그 동계 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이 아이한테 ‘올인’을 했죠. 그게 시작이었죠.”

2) 운동 특기생에서 사춘기 운동선수를 키우는 부모로

참여자는 자신 또한 중·고등학생 때 체육 특기생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A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선수 생활에 몰입한 뒤 자신과 친정 모, A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겹쳐보이곤 하였다. 올해부터 A는 ‘엘리트’ 소속이 되어 전보다 높은 압박과 긴장 속에서 일정을 수행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춘기에 들어섰다. 그로 인해 특히 훈련이 힘들었거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날에는 참여자에게 늘어지는 자세, 통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는 등 ‘건방진 태도’를 보이며, 동생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든 날에는 유독 더 건방진 행동을 한다고 할까?”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어쩌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아니 동생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 참여자는 늘 붙어 다니며 매니저 역할을 도맡아 해주던 친정 모를 비롯해 항상 가까이에서 남편이 되어주던 가족에게 오히려 더 신경질적으로 대했던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보며 아들을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아들과의 갈등이 잦아지자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고 관여하는 것보다 무심한 남편의 양육태도가 발달적으로 더 잘 맞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든다.

“막말로 얘기하면 함부로 대하는 거고 가족은 자기가 이렇게 해도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냥 제 경험상.
 근데 서운하죠.”

“중 2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 A도 체육 쪽이고, 저도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이럴 때.. 뭐 그냥 사소한 걸로도 자주 다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애가 그러든가 말든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사춘기 운동선수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서 과거 친정 모의 모습을 발견한다. 현재 아들과 나의

관계에서 사춘기 시절 나와 엄마의 관계, 더 나아가 ‘나의 엄마’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다.

“A를 낳고 보다는, 운동 시키면서 이해됐어요. 왜냐면 엄마도 분명히 저를 항상 께업을 해 주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엄마도 진짜 고생 했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알았냐?’고 하는데”

이외에도 참여자는 마트에 들르자고 하면 흠뻑 묻은 훈련복에서 교복으로 갈아입는 등 외모나 이성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아들의 모습에서 ‘나의 사춘기 시절’이 떠올린다. 이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어느덧 ‘자식’이라는 역할에서 ‘부모’의 역할에 더 가까워짐을 실감하였다. 새삼 정말 엄마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다짐하게 된다.

“마트를 간다고 하면 얼른 후다닥 옷을 갈아입거든요. 절대 그 훈련복으로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아요.”

“A가 그러는 거 보면 귀엽고,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도 있어요. 나도 그 시절이 정말 옛그제 같은데, 부모 그늘 아래에서 살았던 시절이 진짜 옛그제 같은데...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게 갑자기 현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몽글해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2. 참여자 2

1) 눈에 띄는 피지컬, 갑작스러운 선수 생활의 시작

참여자 2는 5학년이 된 C가 축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자 “남자가 축구 잘하면 좋으니까”라고 생각하여 취미반에 입단 시켜주었다. 또래보다 큰 키로 감독의 눈에 띄는 C는 이틀 만에 선수반 제의를 받아 옮기게 되었고, 자연스레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다. 이내 FC와 중학교 감독들로부터 스카우트를 받고, C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참여자는 타 지역의 중학교로 진학시키기를 결정하였다. 아들은 빠르게 자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참여자는 취미로 가볍게 시작한 축구가 선수 활동으로 전환되며 부자의 거리를 벌리는 것이 씩 반갑지 않았다.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그때 보고 축구에 관심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뭐 남자가 축구 잘하면 좋으니까. 취미반에 입단했죠. 그런데 이제 취미반에 입단하고 이틀 만에 선수반에 제의를 받은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 솔직히 싫었죠. 저는 축구를 그만뒀으면 했어요. 나에게서 떨어뜨리기 싫어서.”

2) 끈끈한 부자 관계,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아들

참여자는 독박육아를 하여 C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관계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던 모습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들에게 온 정성을 쏟았다. 지금도 매 주말마다 C가 지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얼굴을 보는 등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뜻하였다. 참여자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자 생각한다.

“C는 딸 같은 아들이죠.”

“부모님은 이제 병이라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키우니까 더 그렇다고.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아들인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는 거죠. 못 하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뭐 성년이 돼서도 뭐.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주는 거고.”

C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고등학생 때부터 팀원들과 합숙 생활을 해야 하고, 참여자가 찾아가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프로선수로서 데뷔하고 난 뒤에는 더더욱 아빠의 곁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에 참여자는 C가 축구를 그만두고 자신의 품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토록 하고 싶다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두 가지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떠나가면 떠나는 거죠, 뭘. 어차피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여서. 좀 아쉽고 서운하긴 하겠지만 굳이 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모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가면 가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어요,
 간다는 걸 잡을 수도 없는 거고.”

3. 참여자 3

1) 매니저 겸 페이스메이커, ‘진지한줄 알았다면 안 시켰을텐데...’

참여자 3은 D, E가 각각 5학년, 3학년일 때 친한 형을 따라 축구 센터에 등록하고 싶다고 하여 취미반에 등록시켜주었다. 그렇게 입문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선수반이 결성되고 대회에 출전하였다. 이에 참여자는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 깊은 고민 없이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선수 생활에 진지하게 임하게 되며 전학, 진학, 팀 이적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자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것도 모두 엄마의 몫이 되어 힘들어하였다.

“처음 대회 나갈 때는 그냥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나갔는데...”

“진지한 거면 안 시켰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멘탈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제 멘탈도 중요하긴 한데 아이 멘탈도 챙겨줘야 되고, 또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것도 제 몫인 것 같아요, 아직은.”

2) 두 축구 선수의 엄마

참여자 3은 아들 두 명이 모두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며 각각의 팀에 속해있는 감독, 코치, 팀원 아이들을 비롯한 선수 부모 커뮤니티까지 고려해야 하였다. 한 명의 매니저가 관리해야 하는 선수가 두 명인만큼 요구되는 노력과 지원도 2배이기에 참여자는 더욱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한 첫째를 타지의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둘째는 입학 예정인 중학교 근처의 초등학교로 전학 보내며 두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다. 참여자는 축구 선수가 되고자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가족 모두의 일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선수 둘이 떠남으로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취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선수반은 안 시키고 싶어요.”

“둘 중 한 명만 한다 하면 덜 그랬을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지내게 있는 두 아들의 곁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설령 사람이 채워줄 수 없다면, 물질적인 것으로나마 갈증을 달래주고자 하였다.

① 가족, 친구와 함께 있는 첫째

참여자는 D가 친정이 있는 지역의 중학교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수락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졸업식 직후부터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어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친구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여 이적 시켜주었고,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참여자는 첫째 역시 어린 나이이지만, 곁에 늘 가족이나 친구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에 안심되었다.

“처음 이제 1학년 입학하고 경기 치르고 나서... 졌거든요. 한 2시간 운 것 같아요. 첫 경기라 혼자 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옆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② 홀로 떨어진 아픈 손가락 둘째

반면 아직 초등학생임에도 전학을 3번 하며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E에 대해서는 “마냥 애기 같다”고 느껴진다. 더군다나 비밀 언덕 하나 없는 먼 곳에서 혼자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렸다. 하지만 자신은 엄마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힘들어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며,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응원해주는 역할이 되어주고자 하였다. 또한 “친구와 같은 브랜드 옷을 맞춰 입고 싶다”고 하거나 “비슷한 운동화를 여러 켤레 갖고 싶다”고 하는 등 둘째가 요구하는 것은 되도록 들어주며 어떻게든 빈자리를 메꿔주고자 하였다.

“00지역에서 E가 올 때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뒤에 딸도 타고 있고 거기다 대고 막 저까지 올 수가 없어가지고... 참긴 했는데.”

제2절 사례 간 분석

1. 취업 길잡이 부모

참여자들은 미성년자인 운동선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팀에 속할 수 있을지”, “프로로 데뷔할 수 있을지”, “프로팀 주전으로 선발된 뒤 경기에 출전하여 선수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적 성공을 위해 앞으로 어떤 중·고등학교에 진학시켜야 할지, 그 이후에는 대학선수나 프로선수로 데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이력서를 채우는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있었다.

1) 엄마, 아빠가 대신 하는 취업 준비

참여자의 자녀들에게 운동은 즐거운 취미생활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먼저 원하기도 하였고, 감독의 추천으로 선수반에 입문하였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에게 선수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애 가능성이, ‘애는 어떻게 야구로 될 아이다.’ 이런 걸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헛갈리는데(참여자 1).”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한 치 앞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참여자 1).”

유소년 운동선수로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에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야 한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방학에 합숙훈련을 보내고 유급을 고려하거나 전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시기 동안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 즉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부모가 된다.

참여자들은 아이의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다른 지역의 팀에서 제의가 들어올 경우 미성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떠나보내야 할지”, “체육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운동부 중 어떤 길로 진학시키면 좋을지”에 대해 또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프로선수까지 갈 수 있다는 보

장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아이의 선수 생활을 응원하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이 계속된다.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 뮈 6, 7등급만 돼도 대학은 다 가고 내신은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막 목숨 거는 건 아닌데 축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가는 게 10%, 그중에서도 고등학교를 가는 게 10%, 그 중에 한 0.2%만 데뷔를 하니까(참여자 2).”

아이가 이러한 고비들을 넘기고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되더라도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주전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한, 선수 활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 부상, 부진한 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혹은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는 등 예상치 못하게 선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술 및 재활, 휴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최악의 상황에는 결국 다시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조기 은퇴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프로선수가 되더라도 수입, 지속 가능 기간, 노후 준비 등에 있어 불안정하다. 프로 팀을 가기위해 투자해야 하는 많은 지원과 노력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1단계 성공”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참여자 2는 ‘플랜 B’를 마련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1단계 끝이라는 것은 프로가 아닌가.. 프로 가서 또 잘해야 되니까(참여자 1).”

“말 그대로 완전히 프로산하 고등학교를 아예 가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축구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 축구부로 가서 그래도 공부도 좀 하면서 내가 축구 선수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될지예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참여자 2).”

2) 속 타는 엄마, 아빠와 철없는 아이

자신의 소속 팀이 정해지고 나서 A, D는 중학교 진학이 결정되었을 때, E는 진학 예정인 중학교 근처로의 진학이 결정되었을 때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A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하고 주말에 만나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긴 했는데, 학교라도 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가니까 야구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참여자 1).”

“E가 여기서 축구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00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친구들과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한 2주 전에 ‘안 하면 안 되냐’고(참여자 3).”

참여자들은 프로 팀 취업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진작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니 당황했다. 더욱이 친구와 떨어지기 싫어서가 이유라고 하니 “어린 아이 같은” 자녀의 모습이 답답했다. 참여자 3은 자녀가 선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빨리 중단하고 부족한 학업시간을 더 늘려줘야 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더욱이나 부모인 ‘내가’ 지금까지 공들인 시간이 헛된 노력이 될까 봐 실망감과 허무함을 느낀다. 참여자 1과 3은 지금까지 애태우며 진지하게 임한 것이 어찌면 부모인 ‘나’ 뿐이고, 아이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했다.

“취미로라도 하겠다는 건 완전히 놓기는 싫다는 거니까. 그건 지금 순간의 너의 감정이다. 모든 가족이 몰심양면 너에게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너를 취미로 이렇게 한다? 우리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 집 아니다(참여자 1).”

“애기 아빠가 처음으로 엄청 화났어요. ‘친구들과하고 노는 게 중요해서 축구를 그만 두냐, 엄마 아빠가 몇 년 동안 뒤에서 해준 게 뭐가 되냐(참여자 3)’”

2. 우리 가족은 하나 되어 ‘을인’, 소외되는 형제

어릴 때 부모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보다는 또래와 더 가까워진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 자신의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주말에도 아이의 훈련 및 시합 일정에 맞춰 함께 움직였다. 참여자 2의 여름휴가는 합숙훈련 일정과 장소에 따라 결정되며 훈련 기간 동안 동고동락한다. 또한, 회비부터 각종 훈련비와 시합 및 합숙경비 등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 그들의 관심과 지원은 선수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A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참여자 1).”

“지금은 완전히 애한테 거의 ‘올인’이니까, 애한테 뭐 부담을 주고 ‘넌 잘해야 된다.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루하루 일과가. 그냥 모든 가족이 다(참여자 1).”

한편 형제가 있는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운동선수가 아닌 자녀에게 마음도, 돈도 맘껏 쓰지 못하고 있었다. 동생이고 막내이기에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이일 때부터 엄마의 일상 대부분은 선수인 오빠 위주로 돌아갔고, 주말에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오빠의 시합경기에 따라가야만 했다. 참여자 1은 b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음에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많이 신경써줄 수 없으니 그만큼 스스로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전에 b가 스케이트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만약 A가 야구를 안했으면 입문은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가요. 제가 애를 데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아예 엄두도 안내죠(참여자 1).”

“딸도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죠. 글고 예쁘죠. 근데 오빠가 선수 생활을 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애한테 모든 거를 다 맞춰야하니까... 미안하죠, 우리 딸한테(참여자 1)”

“한편으론 또 잔하지, 그 어린 게 오빠들 쫓아다니고, 어렸을 때부터(참여자 3).”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딸이 무언가 요구했을 때 오빠에게 해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들어주려고 애썼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했고 딸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다.

“이제 미안하니까 주말에 ‘엄마랑 드라이브 갈까?’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될 때는(참여자 1).”

“그래,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너 그거 하나 못 해주라(참여자 1).”

“딸이 많이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오빠 운동할 때는 여기 따라가주고 저기 따라가주고 다 했는데 자기는 왜 수영 보러도 안 오고 태권도도 안 오냐고(참여자 3).”

“이제 오빠들도 없고 하니까 f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참여자 3).”

3. 또 하나의 가족, 멀고도 가까운 관계

참여자들은 자녀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모의 고민’이 많아졌다. 참여자 1은 선수 부모 커뮤니티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받았고, 자녀의 선배 부모에게 많은 조언과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 부모 커뮤니티는 자녀를 통해 만나게 된 인연이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에 따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또한, 내 자녀가 경기에서 출전의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남의 자녀 중 누군가는 벤치에 있어야 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 마냥 기뻐하거나 축하해주기 어렵고, 부모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 같은 부모로서, 더부살이 양육

부모는 아이를 낳음으로서 새로이 시작하게 되는 삶이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 수행 과정에서 부모 개인은 늘 새로운 어려움을 맞이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를 배우자와 논의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하며 도움을 얻는다.

참여자들은 같은 팀원의 부모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팀에 소속된 선수 부모들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공동육아’를 한다. 키 성장에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고, 어디 한의원이 잘 본다더라 하고 알려주며 아이들을 함께 챙겨준다. 고향을 떠나 타지살이를 하는 참여자 3에게 선수 부모 커뮤니티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결혼 초기 때는 그냥 우리 위주였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이 아이가 속해 있는 이 팀에 우리는 다 하나라는 생각(참여자 1).”

“주변에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이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

“매일 연락하고, 대회 같이 따라다니고, 대회 없는 날도 자주 만나서 술 먹고 이야기하고(참여자 3).”

자녀들의 숙소를 청소해주거나 식사를 만들어주는 등 부모들이 다함께 해야 하는 활동을 통해 이러한 유대 관계는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참여자들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주기도 하였다. 참여자 1은 다른 부모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아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신체적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땀을 진짜 막 비 오듯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힘든데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그 성취감(참여자 1).”

“제가 A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너는 프로를 갈 거니까, 프로를 가면 엄마는 너의 중학교 생활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참여자 1).”

하지만 ‘개인’으로서 맺는 관계와는 달리 ‘부모’로서 맺어진 관계는 가깝고 편안 하지만은 않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이였다면 ‘나’로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관계를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선수 부모 커뮤니티는 훈련, 숙소 생활 등 앞으로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해야 하는 ‘같은 팀의 자녀’를 통해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조심하게 된다. 선수 부모들은 훈련 및 경기 일정마다 한 목소리로 팀과 자녀들을 응원하며 친밀해지는 동시에 보다 더 주의하고 말을 아끼며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이지만 더 가까워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자 3은 D와 E가 차례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내내 함께 어울리던 선수 부모들과 멀어졌다.

“저희는 정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3년이 갈 수도 있고 6년이 갈 수도 있고, 또, 같이 뭐 프로로 가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 언젠가는 빠이빠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참여자 1).”
 “내가 결혼도 안 해서 그냥 내가 관련된 어디 단체 소속을 했는데 ‘싫다’ 그럼 나는 그걸 안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참여자 1).”

“D가 먼저 가니까 이제 D 또래 같은 팀의 엄마들하고도 점점 멀어지고, 근데 또 E가 가버리니까 그 엄마들하고도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참여자 3).”

2) ‘백조의 물장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부모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된다. 비록 현재는 같은 팀에 소속된 아이들이지만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서로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다.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내 자녀가 더 많이 성적을 내고 눈에 띄어야 한다. 중학교 진학이 결정된 후에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의식을 갖게 되고, 경계하게 된다. 부모들은 단합하여 팀을 응원하지만 그 속에서는 각자 안간힘을 다 하며 조금이라도 더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고등학교를 다 각자 갈 것이고, 거기서도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를 간다든지 야구를 포기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좁 서로 간에 경쟁이 있어요(참여자 1).”

“사실은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 유대가 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초등만큼 그렇게 뭐 끈끈하거나 이런 따뜻한 관계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중학교부터 이제 사실 전쟁 시작이니까, 운동하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 묘한 긴장감? 그런 게 좁

있어요. 서로 조심하죠(참여자 2).”

4. 매니저와 엄마, 아빠

자녀가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참여자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헬리콥터 부모’¹⁾가 되어가고 있었다. 유소년 선수 시기는 스포츠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투자와 정보 탐색, 소속 팀의 결정 또한 참여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양육자로서 부모뿐만 아니라 ‘스포츠 에이전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했다.

참여자들은 매니저의 마음가짐으로 ‘내 선수’의 성장이 더디면 조바심이 심해진다. 참여자 1은 아이를 뒷바라지 하느라 지치더라도 ‘내 선수’의 성적이 좋으면 내 성적표인 것처럼 뿌듯하다. 자녀 또한 부모가 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 압박을 받고 팀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더 빠리, 많이 성장하고자 하며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쟁 상황에 노출되고, 힘든 훈련을 해내는 자녀를 보면 참여자들은 부모 마음으로 돌아와 “운동이 뭐라고...” 라는 생각에 안쓰럽다. 여전히 내가 많은 걸 해줘야 하는 “몸만 큰 애기”로 보인다. 한편, 참여자들 모두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조절이 어렵고 반항적인 행동들이 나타나 걱정이다. 운동을 안 하는 아이였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선수생명은 끝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매니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부디 사고만 치지 않기를” 바란다.

1) 나의 부캐는 스포츠 에이전트와 매니저

자녀의 훈련 및 경기 일정이 있는 날마다 참여자들은 어김없이 선수의 짐을 싸주고, 먼 길을 차로 태워다주고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한다. 일정을 마친 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내 선수’의 몸 건강과 기분 상태를 살피며 지지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내 선수’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훈련이나 물품을 마련해야 하는지, 스카우트가 들어온 팀들 중 어디로 보내야 할지 등 스포츠 에이전트의 역할까지 참여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참여자 1과 3은 관심

1) 신조어로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챙겨주고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모(우리말샘)

도 없었던 야구와 축구 기술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선수’의 포지션에 맞게 육성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다.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변의 다른 선수 부모와 자신을 비교하며 더 부지런해져야겠다고 다짐하거나, 자신의 힘들을 자녀에게 내비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자 하였다.

“애가 야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된 거지. 다른 부모님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부지런한 것도 아니더라고요(참여자 1).”

“팀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팀 아이들한테도 눈치 보이고 ‘가, 엄마 아빠가 뒷일은 책임질게’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깐 감독님 전화만 받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참여자 3).”

또한, 운동선수의 ‘피지컬’은 기능향상 및 성적과 관련성이 높다.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피지컬’로 인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전에 ‘내 선수’가 많이 커야 한다. 그러나 중학생은 성장기이며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계획한 만큼, 원하는 만큼 키와 몸무게를 늘릴 수가 없다. 참여자 1과 3은 자녀가 또래 평균에 비해 큰 키이고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초조하다. ‘내 선수’가 중3 전에 키가 커질 수만 있다면 성장보조제, 영양제, 한약 등을 준비하며 매니저의 자세로 투자하고 있다. ‘내 선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원하는 팀에 스카우트 받을 수 있도록 바라고 또 바란다.

“구속이 안 나오니까 키도 얼른 크고 싶고 살도 얼른 찌고 싶어 해요(참여자 1).”

“그냥 저는 애 나이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애가 룰런할 수 있는 선수가 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뭔가 잘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참여자 1)”

“쪼끔 스트레스 받아 해요. ‘아 나 언제 크지, 언제 크지.’ 근데 그래야 돼요..”

제대로 할 거면 커야 어쨌든(참여자 3).”

“3학년 2학기, 방학 전에 팀이 다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최대한 많이 키워야 되고(참여자 3).”

“선수는 11명밖에 못 뛰어요. 보통 팀에 15명에서 많은 곳은 20명 정도 뽑으니까 1등부터 11등까지만 운동을 나가는 거죠. 잘하는 애들은 월반해서 위 학년 경기를 뛰고, 전쟁이라는 게, C가 2학년 경기를 뛰면 원래 뛰던 애가 또 못 뛰게 되고(참여자 2).”

참여자들은 매니저로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선수’를 챙기고 응원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 아빠이자 주부로 다시 출근하였다. ‘육아는 출퇴근이 없다’는 말처럼 밀린 집안일부터 나머지 가족들의 돌봄까지, 참여자는 종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연장전에 재투입된다. 이처럼 선수 부모로서의 부캐²⁾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본캐³⁾ 역할까지 요구되기에 참여자들의 하루는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간다.

참여자 1은 A가 중학교 진학을 했지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니저와 양육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점점 더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내 선수’와 가족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기력이 소진된다.

“모든 게 안 되어 있죠. 하나라도 되어있으면 조금 그래도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그래, 이건 내 일이니까, 내 몫이니까’라고 생각을 할텐데 한 번씩 현타가 올 때는 나도 모르게 (참여자 1).”

“내가 너무 힘들게 진짜 터덜터덜 집에 왔는데. 사람 마음이 지치니까. ‘이게 그냥 나의 몫인 건가?’(참여자 1)”

‘내 선수’ 육성에 시간과 돈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아 부은 참여자들은 자녀의 성적을 기대하게 된다. 참여자 2는 C가 축구를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은 ‘내 선수’의 “최선”을 바란다. 참여자 1은

2) 副character의 줄임말이고 온라인 게임에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라는 의미의 신조어

3) 本character의 줄임말이고 온라인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라는 의미의 신조어

A가 진지하게 야구훈련에 임하고, 성적도 좋으면 ‘내가’ 애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든다.

“어찌 됐든 간에 목표는 그거잖아요. 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그냥 대충 야구 취미로 하고자 이런 고생을 하면서 시키진 않잖아요. 아이도 고생을 하는데 문제는 부모만 주구장창 고생하고, 아이는 대충 그렇게 하면 속이 상하죠(참여자 1).”

“아이가 너무 아무 것도 안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는 ‘이렇게 할 거면 야구를 왜 하지?’라는 순간적인 욕한 감정에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안 해야 되는 말이지는 한데 ‘너 그럴 거면 때려쳐. 그냥 하지마. 뭐 하러 해. 남들 하는 만큼만 할 거면 왜 해?’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1).”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쉬었다 가도 괜찮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너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 하고(참여자 2).”

2) 부캐와 본캐의 사이, ‘선수를 키우는 매니저와 “애기”를 돌보는 부모 사이’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가족의 관심이 모두 자신에게 쏠림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선수로서 성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은 경기에 설 때마다 긴장하고 자신이 세웠던 전략을 실천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시에는 몇 시간을 울고 좌절하는 등 큰 감정적인 소모를 경험하고 있었다.

“워낙 또 이제 축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실제로.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입학하고 첫 경기에서, 다 진 거예요. (아이가) 2시간을 영영 울었어요(참여자 3).”

하지만 참여자들은 부모이고, 그들 눈에 비친 자녀 또한 선수이기 전에 한없이 어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애기”이다. 때문에 어린 자녀가 빨리 변화하고 싶다면 조

바심 내고 경기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 혹은 이른 시기에 부모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참여자들은 마음이 아팠다. 참여자 3은 아이가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운동을 계속 시키는 게 맞을까?” 하고 엄마의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싶다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단호하게 “그만 뒤” 하기도 어렵다.

좌절을 딛고 한 단계씩 성숙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매니저로서 아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지원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돌아서면 “운동이 뭐라고...”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채 아이를 응원하고 걱정한다.

“근데 대단해요. 어찌 됐든 그걸 이겨내고 내려왔으니까. 처음 했을 땐 정말 눈물 났었어요(참여자 1).”

“그냥 지금은 보면 안쓰럽죠. 그 축구가 뭐라고 만 12살밖에 안 됐는데 부모 곁을 떠나서 그렇게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참여자 2).”

“기특하죠, 사실은...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적응해서 살고 뭐 그런 거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참여자 2).”

“애들은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 있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로지 자기들이 감내해야 되니까, 짠해요, 진짜(참여자 3).”

“E가 올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거라 생각할 것 같아서(참여자 3).”

참여자는 부모로서, 아이는 선수로서 노력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사춘기를 맞이한다. 참여자들은 ‘선수’라는 부담을 ‘감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다 컸네, 듬직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반항이 시작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온다. 참여자들이 모두 걱정하는 것은 ‘학교 폭력’, 그리고 ‘성’ 문제이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물론이고 가해자와 같

은 무리에 소속되어 있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되는 상황 등 조금이라도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또는 선수로서 제명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다시 매니저의 태도로 돌아가 어떤 형태로든 아이가 이런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부모와 매니저, 본캐와 부캐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이력이 있으면 시합을 못 뛰어요. 저는 그런 일만 안 생기면...(참여자 1)”
 “말도 안 되는, 성적 행위를 했든지 요즘에 막 그런 기숙사라든지 이런 게 뜨면 솔직히 좀 두렵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피해자도 막 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1).”

“C가 잘 때 한 번씩 핸드폰을 체크해요. 뭐 이상한 친구는 없는지. 인스타, 페이스북 들어가봐요. 몰래 봐야죠. 이상한 애 보이면 타고서 그 애 인스타도 들어가보고(참여자 2).”

“어찌 됐건 어떤 일에 연루가 되는,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아이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냥 점검하는 거죠(참여자 2).”

5. 매니저도 엄마, 아빠도 아닌 ‘나’

지금까지 10년 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참여자들은 어느덧 자신의 이름보다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서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이와 더불어 선수 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아이의 일정과 진로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나’는 뒤로 밀려나 있다.

참여자 1은 아이와 함께 살고 있기에 매니저와 엄마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반면 참여자 3은 두 아들 모두 그리고 참여자 2는 외동아들이 타 지역에 있다. 참여자 2와 3은 매니저이자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지난날과는 달리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 참여자 2는 조금 더 ‘아빠’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참여자 3은 ‘나’를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1) 갑자기 사라진 일정, 이제 뭐하지? ‘빈 등지 증후군’

참여자 2와 3은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면서 공허함과 일시적인 우울감에 빠질 정도로 아이를 챙기지 않는 시간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빈 등지 증후군’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여 품을 완전히 떠나간다고 느끼는 청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수 활동을 하는 자녀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훈련 및 경기 일정, 그리고 타지에 있는 학교로의 진학 혹은 기숙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 더 이른 나이에 부모의 품으로부터 떠나기도 하였다. 그 전에는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공유했던 자녀가 떠나는 것은 참여자들의 일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없던 ‘빈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심심하죠. 허전하고. 처음엔 우울증처럼 그랬어요(참여자 2).”

“처음 E 가고 나서 방에 진짜 2~3일은 할 게 없으니까 침대에만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이 시간이면 픽업을 나가야 될 시간이고, 어떤 일이든 뭐 경기를 따라가는 시간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텅... 붕 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참여자 3)”

“공허해요. 항상 북적북적대다가 이제 나갔으니까(참여자 3).”

2)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잠시나마 더 함께

참여자 2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허전하고 무료했다. 아이가 소속된 축구팀과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아들을 만나러 간다. C가 타지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결정되며, 곁에서 챙겨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C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가서 같이 살까?”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 정말로 품을 떠나기 전까지 아직 조금이라도 더 아빠로서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참여자 2는 자녀와 비록 몸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몸도 마음도 가까이에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품안의 시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축구를 계속하게 되면 고등학교부터는 축구가 무조건 합숙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2년 밖에

안 남은 거여서 ‘그 남은 2년 잘 먹고, 얼굴도 자주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참여자 2).”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금토일만 기다려요(참여자 2)”

“모든 일상이 C 보러 가는 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2).”

3) 갑자기 생겨난 ‘나만의 시간’

참여자 3은 D, E가 떠남으로서 “빨리 고생했지만 이제 조금 편해졌다, 훌가분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타지에서도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D, E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시원한 해방감이 들기도 하였다. 아들들의 운동 일정으로 인해 꼭 차있던 일정에 여유가 생김으로서 지금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이제 좀 자유롭다(참여자 3)”

“그냥 이제 내 손에서 떠나서 솔직히 훌가분한 느낌이 너무 커요(참여자 3).”

“E 가고 나서 진짜 시간이 너무, 빈 시간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을. 전에는 픽업 왔다 갔다 하고 경기 쫓아다니고 대회 쫓아다니느라 뭐 할 시간, 엄두도 안 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해봐야겠다.’ 하고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참여자 3).”

참여자 3은 이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며, f까지 자라면서 앞으로 점점 더 그 시간이 늘어날 것이기에 이를 아깝지 않게, 잘 활용해보고자 고민하였다. 하지만 매니저도 엄마도 아닌 나로서의 삶은 해본 적이 없어서 난감하다.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을 밖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참여자 3).”

“이제 애들이 일상이니까, 애들의 시간대로 나는 같이 움직였으니까... f도 늦게 오니까. 그 시간이 되게 좁... 아깝기도 하고, 저도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참여자 3).”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참여자 3).”

이처럼 참여자 3은 참여자들 중 엄마로 살아온 시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나만을 위한 시간에 대해 가장 혼란스러워했다. 성인기 이후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나의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걸 다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구나(참여자 3).”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 왔으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았으니까 항상.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일상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나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안 것 같아요(참여자
3).”

제5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소년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들의 ‘부모되기’ 경험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진학 시기의 선수 자녀를 둔 부모 세 명과 각 세 차례씩 면담을 진행한 뒤 개방 코딩하여 사례 내,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례 내 분석 결과는 첫째, 참여자 1은 ‘5학년 말부터 시작된 매니저 생활’을 통해 ‘운동 특기생에서 사춘기 운동선수를 키우는 부모로’ 성장하고 있었다. 참여자 2는 ‘눈에 띄는 피지컬, 갑작스러운 선수 생활의 시작’을 계기로 ‘끈끈한 부자 관계,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아들’이라는 관계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참여자 3은 ‘두 축구 선수의 엄마’로 ‘매니저 겸 페이스메이커, 진지한줄 알았다면 안 시켰을텐데’라며 선수 부모되기 경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례 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들은 ‘취업 길잡이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모 자녀관계의 역동은 ‘엄마, 아빠가 대신 하는 취업 준비’, ‘속 타는 엄마, 아빠와 철없는 아이’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우리 가족은 하나 되어 올인, 소외되는 형제’를 통해 자녀의 선수 생활이 가족 전체의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또 하나의 가족, 멀고도 가까운 관계’에서 선수 부모 커뮤니티의 특성은 ‘같은 부모로서, 더부살이 양육’, ‘백조의 물장구’라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은 ‘매니저와 엄마, 아빠’라는 여러 역할을 맡으며 ‘나의 부캐는 스포츠 에이전트와 매니저’이며 ‘부캐와 본캐의 사이, 선수를 키우는 매니저와 애기를 돌보는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도 엄마, 아빠도 아닌 나’에 대해 탐색하며 ‘갑자기 사라진 일정, 이제 뭐하지?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잠시나마 더 함께’하거나 ‘갑자기 생겨난 나만의 시간’에 적응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되기 경험은 양육자이면서도 다양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에이전트와 매니저가 되어 자녀가 선수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하고 투자를 한다. 아이의 출석과 성적 변화를 체크하며 주말과 휴가를 반납하고 훈련 및 시합일정에 동행한다. 또한, 취업 컨설턴트가 되어 다양한 취업전략을 세우며, 그에 맞춰 진학할 학교나 이적할 팀을 결정한다. 이러한 부

모되기 경험은 유소년 엘리트 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재정적, 시간적 헌신과 자녀의 기량 및 경기결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강현희, 최덕목, 임학주, 2016; 이영직, 임다연, 2021)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에 비해 학령기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진 진로 선택의 폭이 더 좁다는 연구 결과(이도윤, 2014)와 경기 실적으로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진로를 국가대표나 프로팀 선수로 제한하는 상황(김민규, 2020)과도 본 연구결과는 일맥상통한다. 즉, 선택지도 적고 성공 가능성도 모호한 프로선수 취업을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선수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았을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해야했고 주로 양육과 돌봄, 교육에만 힘쓰던 이전과는 다른 양육 태도가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갈등이 잦아지고 때로는 소진되기도 한다. 반면,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느낄 수 있는 회의감 및 혼란스러움과 부모 역할이 끝났다고 느낌으로서 드는 무기력함을 상쇄시키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매니저 역할, 선수 부모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아직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기쁨을 느꼈다. 이러한 뿌듯함은 참여자들의 에너지를 끌어 올려줬고 자녀의 “멘탈과 컨디션 관리”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이렇듯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통 속에 머물러있지 않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자폐성장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고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이원희, 2019), 만성질환아동의 부모가 희생과 몰입을 필요로 하는 변화에 적응하며 아동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한다는 연구결과(박은숙, 2015)와 맥을 같이한다.

참여자들의 부모되기는 다중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운동선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소명(vocation)’인데, 운동선수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역할수행은 ‘일(work)’이 되기도 하였다. 일을 소명과 연결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되기 경험은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1과 참여자 3은 선수 자녀에게 관심과 지원을 집중하면서도 다른 형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야한다. 이는 유소년 엘리트 야구선수의 활동이 부모에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균형한 가족역동성으로

준비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턴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면 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제 직업적으로 구체화되고 더 많은 압박을 느끼는 고등학생 운동선수를 둔 부모의 경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프로산하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중 어느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고민해보게 된다.”는 참여자 2의 인터뷰와 “중학교 2학년인 D가 곧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또다시 고민이 시작된다.”는 참여자 3의 말에서 고등학교 진학 또한 그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 진다.

참 고 문 헌

- 강상현, 손정락 (2019). 부모통찰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자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2), 433-445.
- 강현희, 최덕목, 엄혁주 (2016). 그들은 뒷바라지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가?: 프로축구선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5), 209-223.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곽소현 (2000).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간의 자기회귀요치지연 효과. *인재발달중재학회지*, 8(2), 103-121
- 김동현, 김용규 (2018). 주니어 골프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내적동기 및 스트레스의 관계. *골프연구*, 12(2), 133-144.
- 김만수, 김옥자 (2018). 중·고등학교 태권도선수들의 부모지원이 운동몰입,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3), 539-550.
- 김성일 (2015). 유소년 축구선수들의 운동정체성과 자신감 및 사회성숙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913-926.
- 김순영 (2018). 여자 골프 선수가 지각한 부모지지가 스포츠자신감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3부투어 선수 중심). *한국체육과학회지*, 27(4), 335-345.
- 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2017).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8), 161-193.
- 김연진, 박승하 (2018). 청소년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에 따른 부모동기분위기와 실패내성의 차이.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489-500.
- 김연희 (2005).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韓國社會學*, 43(2), 85-129.
- 김지영, 김유숙, 이윤선 (2013). 아동 상담에서의 부모통찰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1), 1-32.
- 김재요 (2020). 학생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와 지도자의 성취압력과 소진의 관계

- 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1027-1038.
- 김종화, 우동한 (2008). 청소년 축구선수 부모 운동지원 행동에 따른 자기관리 행동 및 사회성숙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3), 593-607.
- 김주원 (2003). 청소년기 자녀로 인한 부모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 조규판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0(2), 251-270.
- 김철수 (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운동선수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스포츠 리서치*, 16(5), 1251-1259.
- 김학환 (2020).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운동정서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1(4), 143-160.
- 김한별 (2011). 청소년 골프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스포츠자신감 및 몰입 간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3), 125-135.
- 김희영, 김경희, 권혜진, 염순교, 김수강 (2005). 중학생의 지위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79-101.
- 김희진, 문소영 (2020). 청소년축구선수의 심리기술강화 음악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분석 연구. *음악치료심리재활연구*, 1(1), 3-19.
- 권은영, 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4.
- 권형일, 최경근, 편도영 (2020). NCAA의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본 국내 대학 학생 선수 진로교육의 방향성.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469-480.
- 남미애, 홍봉선 (201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부모됨의 경험과 의미: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141-170.
- 대한의학회 (2011). 국민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2011.9.28\)](http://health.mw.go.kr(2011.9.28))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 문소라 (2017). 대화모임을 통한 부모되기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옥, 강영숙 (2015). 초기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307-334.
- 박민경 (2019). 부모 성찰기능 척도와 청소년 성찰기능 척도의 타당화 및 적용 연구 :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미, 전미경 (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3(5), 358-358.
- 박영희, 박창범 (2016). 여성운동선수 출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 유형. *한국체육과학회지*, 25(3), 277-289.
- 박은숙, 이기형, 오원옥, 임여진, 조은지(2015). 만성질환아동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3), 272-284.
- 박원모, 김미선, 천성문 (2008). 아동, 청소년상담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9(3), 1215-1229.
- 박원모,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5(1), 41-59.
- 박진아 (2020). 군집분석을 활용한 아동 및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19.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5(4), 167-188.
- 백혜경 (2019). 부모와 코치의 자율성지지가 무도종목 선수들의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21(4), 139-156.
- 서재복, 구봉진, 김용규, 김주호 (2008). 유소년 운동선수들의 레저스포츠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4(2), 65-74.
- 성창훈, 유승준 (2011). 청소년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 구성요소와 프로파일. *한국체육학회지*, 50(1) 83-92.
- 소수연, 김승윤, 유준호, 지수연 (2014). 초기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0(4), 425-453.
- 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 손미영, 김영희 (2009).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23-135.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송강영, 황재욱 (2018). 중, 고등학교 골프선수와 부모의 상호작용 요인 탐색. *한국융합과학회지*, 7(4), 70-87.
- 송정숙, 배덕경, 진영주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에 대한 이야기치료 단일사례연구: 부모됨의 정체성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4), 323-345.
- 송진숙, 권희경, 김순기 (2006). 결혼과 가족 그리고 부모됨. 서울: 창지사.
- 신미, 유미숙, 전성희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향숙, 장윤옥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19(5), 189-202.
- 신현균 (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간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4), 1083-1105.
- 신호미 (2016).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의 개발과 관련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영화, 정주리 (2017).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가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9), 249-275.
- 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염혜선, 이은주 (2020). 중학생의 학업열의, 또래관계 질, 공격성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의 시너지 효과. *교육心理研究*, 34(3), 521-541.
- 유계환 (2021).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삶의 만족도, 학업무기력 사이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140-154.
- 유계환 (2021). 중학교 1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정서문제, 학업열의 사이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30(4), 177-196.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일영 (2005).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기적 갈등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17-22.
- 윤민영 (2003).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구매의사결정을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성, 임태희, 장창용 (2017). 초·중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포츠 도덕행동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8(3), 61-70.
- 이광호, 권승민, 김성훈 (2009).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의 부모 관심도에 따른 자기주장과 특성 자심감과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37), 1631-1639.
- 이도윤, 김지태 (2014). 고교 야구선수의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0(56), 685-695.
- 이민지 (202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이옥경, 김지현 (2005). 가족구조와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과 권리*, 9(1), 1-31.
- 이영경, 장훈, 최진이, 허태균 (2008). 부모-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389-404.
- 이영직, 임다연 (2021). 유소년 엘리트 야구선수와 가족구성원의 스트레스 요인 탐색. *스포츠사이언스*, 39(3), 117-127.
- 이원희 (2019).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한 아버지의 부모 되기: '행복한 동행'. *정서·행동장애연구*, 35(2), 239-263.
- 이은지(2021). 성소수자 부모-되기의 교육적 의미. *가족과 문화*, 33(4), 130-163.
- 이은해,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兒童學會誌*, 22(1), 1-18.
- 이찬기, 김지태, 김현태 (2012).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부모지지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4), 29-44.
- 이태림, 이보라, 박송주, 김경민 (2021).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선수의 진로준비과정을 위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3), 371-398.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임혜진, 조유진 (2018). 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 어머니들의 부모됨의 경험.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2), 23-42.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전상완, 이우승 (2017). 청소년 골프선수에 대한 부모의 운동지원행동과 내적동기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매개효과. *골프연구*, 11(3), 67-83.
- 전용동, 이종영 (2018). 체육계 고등학생의 진로프로그램 경험 사례연구. *스포츠사이언스*, 35(2), 205-216.

- 전지영, 조성재 (2021). 청소년의 감정조절전략이 정서적불안정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6), 507-513.
- 전태준, 최재섭 (2017). 대학 운동선수들을 위한 경력개발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7-38.
- 정병삼 (2012). 부모, 교사, 친구관계에서 지각하는 지지가 초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2), 131-159.
- 정옥분(2018). 발달심리학. 제 3판. 서울: 학지사
- 정은경 (2009). 생후 36개월 미만이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의 의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87-108.
- 조유익, 최영준 (2016). 중등학교 유도선수가 지각하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4), 833-845.
- 조한익, 원상희 (2012). 초기 청소년기 정서조절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부모애착의 동시 및 지연효과. *청소년학연구*, 19(6), 315-337.
- 천성문, 박원모, 이영순, 조장식 (2007).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부모-자녀 간의 사소통, 또래관계,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4), 1901-1912.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준재 (2008). 유소년 팀스포츠 선수들의 심리기술 비교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4(2), 21-33.
- 최효임,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9, 40, 57-92.
- 한국교육개발원 (2017).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
- 한충희, 천홍, 김주영, 정구인 (2019). 중학교 축구선수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경기력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1163-1179.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Bigner, J. J., & Gerhardt, C. (2014).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J: Pearson.

- Dallaire, D. H. 1, Pineda, A. Q., Cole, D. A., Ciesla, J. A., Jacquez, F., Lagrange, B., & Bruce, A. E.(2006). Rel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to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ce Psychology*, 35(2), 313-22
- Fredericks, A., & Eccles, S. (2004). Parental influences on youth involvement in sports. In Weiss, M. R. (Ed.), *Developmental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A lifespan perspective* (pp.145-164).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 Umberson, D., Pudrovska, T., & Reczek, C. (2010). Parenthood, childlessness, and well being: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12-629.
- Kay, T. (2000). Sporting excellence: A family affair?,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6(2), 151-159.
- Rice, F. P., & Dolgin, K. Gale.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12th ed.)". Pearson Education, Inc.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2009. 청소년 심리학(제12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Robert, J. F. & Simons, R. L. (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7.
- Shin E H ,Nam E A . Culture, Gender Roles, and Sport: The Case of Korean Players on the LPGA Tour.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23-244.
- Stake, R. E. (2000). 질적사례연구(홍용희 역). 창지사: 서울. (원서 출판 년도 1995년)
- Yin, R. K. (2016). 사례 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송민채 역) 학경사: 서울. (원서 출판년도 2013)

부록 1. 연구 참여자 동의서

연구 참여자 동의서

연구제목 : 유소년 운동 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연구자 : 나 유 승

연락처 : 010-****-**** / (메일 주소)

1. 본인은 본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름, 지역명 등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
3. 본인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인터뷰 내용이 녹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인 _____은(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여자 _____(인) 연구자 _____(인)

2022년 월 일

소 속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

1. 초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되기 관련 질문

- 1) 청소년기에 진입하며 경험하는 변화
 - ① 자녀의 변화 : 신체 발달, 정서 발달
 - ② 부모의 변화 :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부모의 기대
- 2) 부모가 겪는 갈등 및 혼란
 - ① 양육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②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불안, 스트레스, 당황 등)
- 3) 자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 ① 새로운 양육 행동
 - ② 부모교육(프로그램, 서적 등)
 - ③ 부모 커뮤니티(또래 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관계)
- 4) 초기 청소년기 부모로서 형성하는 부모됨의 의미
 - ① 자녀의 성장에 대한 의미(기쁨, 대견함 등)
 - ②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감사함 등)
 - ③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 자녀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 ④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 부모로서의 나, 새로운 부모역할

2. 청소년 선수를 자녀로 둔 부모되기 관련 질문

- 1) 선수로서의 중학교 입학
 - ① 변화된 환경에 대한 반응(불안, 기대 등)
 - ② 독립해가는 자녀에 대한 반응(뿌듯함, 허전함 등)
- 2) 선수를 육성하며 겪는 경험
 - ①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 지원
 - ②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생긴 변화 : 경제적·시간적 노력, 가족 역동
 - ③ 선수를 결정한 계기와 진로에 대한 부모-자녀 각각의 입장